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기획 대선주자 집중토론회

국민의당 손학규

“경선 끝나면 정치권 ‘빅뱅’ 올것”

국민의당 소속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마포 캠프사무실에서 열린 광주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언론인들과 한 대선주자 검증 집중토론회에서 차분했다. 3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의 영향으로 보였다.

하지만, 정치 소신과 정책 방향 등에 관한 답변에는 조금의 막힘도 없었다. 오랫동안 쌓여온 내공을 보여주는 듯 했다. 특히 개헌과 지방분권, 안정적 개혁에 대한 태도는 자신감이 넘쳤다.

-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 ▲ 변화와 개혁, 안정이다. 국민이 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그 시발이 촛불시민 혁명이었다. 그러나 촛불혁명은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사회 건설의 요구다. 그러나 개혁을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 개혁 자체가 국민에게 자칫 파국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 안정적 개혁을 위해 왜 손학규여야 하는가. 손 전 대표의 강점은 무엇인가.
- ▲ 후보들이 비슷한 공약을 내지만 누가 실천할 능력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말과 이미지로 판단해서 안 된다. 결국, 살아온 삶을 봐야 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세계적 감각이 중요하다. 죽음을 불사한 민주화운동 속에서 청년기를 지냈고 유신이 끝나고 나서 교회 장

개헌, 다음 대통령이 책임지고 추진해야

연립정부 차원 국회서 국무총리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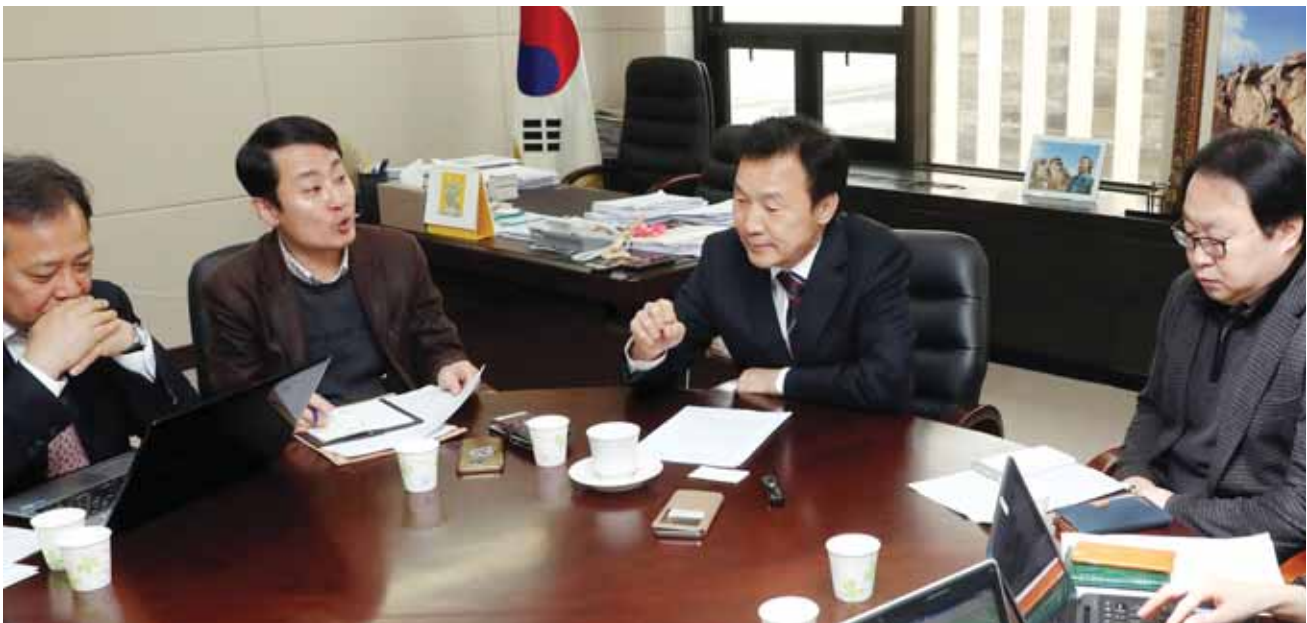
대연정 대상에 자유한국당 포함 안돼

학급으로 영국 유학을 갔다. 세계를 보기 위해서였다. 그랬기에 경기도지사사를 하면서 세계 속의 경기도를 만들고 세계 최첨단기업들을 끌어들여 74만개 일자리를 만들었다. 또 민주당 대표를 두 번 하면서 야권대통합을 이뤘다.

- 개헌 로드맵은.
- ▲ 제가 처음 개헌 얘기를 했을 때부터 시작했으면 벌써 끝났다. 그런데 전문패권세력이 개헌을 막았다. 대선 국면에서 개헌작업이 착실히 진행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음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야 한다. 또 다음 대통령은 언제까지 어떤 내용의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했으면 좋겠고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새로운 헌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통령 임기가 이번에는 3년으로 제한해야 한다.
- 개헌 내용과 방향은.
- ▲ 우선,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

해야 한다. 독일식 책임총리제를 선호하나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의 향수가 있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생각할 수 있다. 어찌 됐건 대통령 권한이 나눠져야 한다. 그러면 연립정부는 불가피한 선택이 된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선거제도 개편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방분권의 시대가 열려야 한다.

- 대통령이 되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헌법 구조에 따라 정권을 운영하겠다. 연립정부 차원에서 사실상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고 각료도 연립정당이 같이 선정하도록 할 것이다.
-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은.
- ▲ 거의 무정부 상태에서 사드가 들어왔다. 지금이라도 중국과 미국을 한 테이블에 앉혀서 사드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한 패기지로 논의해야 한다.
- 선거 전 개혁세력 연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룰 것인가.



23일 서울 마포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캠프 사무실에서 손 전 대표(오른쪽 두번째)와 박지경 광주일보 서울취재본부 정치부장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기자들이 후보자 검증 토론회를 하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박희만 기자

- ▲ 국민의당 경선이 끝나고 대선 후보 등록 전까지 결정적인 것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일단 호남경선이 끝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그때부터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 대상은.
- ▲ 바른정당 같은 경우가 1차적인 협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민주당의 개혁세력, 그밖에 정치권 안팎의 사람이 다 같이 노력할 것이다.
- 이런 과정이 손 전 대표가 말해온 정치권 ‘빅뱅’인가.
- ▲ 지난 한달 동안 정치권 변화를 보면 된다. 반기문씨가 대권주자 1위로 2년을 지배하다시피 하다가 포기했다. 손학규

- 가 국민의당에 합류하고 김종민씨가 민주당을 탈당했다. 또 홍석현씨가 대선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 이것들이 변화 조짐이다. 4월 후보 등록 때까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등록 이후에도 있을 수 있다.
- 대연정 대상에 자유한국당은 포함 안 되는가.
- ▲ 자유한국당은 지금 ‘박근혜 아바타’ 같다. 박근혜 아바타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 국민의당 경쟁자인 안철수 전 대표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길 전략은 있는가.
- ▲ 안 후보는 똑똑하고, 국민의당을 만

- 들고, 지난 총선에서 3당을 만들었으니 국민의당의 제 1후보로 대접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기를 누가 극복할 것인가. 개혁을 누가 안정적으로 할 것인가. 국민을 누가 통합할 것인가.
- 호남 경선이 중요한데.
- ▲ 이길 것이다. 제 1당의 제 1후보에 대한 지지가 ‘문재인 대세론’으로 나타났지만 국민의당이 개혁세력의 대안이 되고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광주·전남에서 국민의당 지지도가 높아질 것이다. 나아가 손학규에 집권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들면 손학규를 지지할 것이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박지경 기자

국민의당 대선 후보 박주선 인터뷰

“개혁세력 대연합… 호남중심 정권교체 이룰것”

25일 실시되는 국민의당 광주·전남·제주지역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주목받고 있다. 뒤늦게 출마한 박 부의장이 호남의 심장인 광주·전남에서 돌풍을 일으킨다면 국민의당 경선 판도의 변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광주일보에는 23일 국민의당에서 유일한 호남 주자인 박 부의장과와의 인터뷰를 통해 승리의 전략과 국정 운영 계획, 호남 공약 등을 들어 보았다.

- 뒤늦게 경선에 참여했는데.
- ▲ 국민의당 핵심 기반은 호남이다. 호남 민심이 결단하면 경선 승리가 가능하다. 호남의 가치와 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호남 유일 주자인 박주선을 호남 민심이 지지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
- 대선 승리의 해법은.
- ▲ 제가 호남의 선택으로 국민의당 후보로 나선다면 문재인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 비문세력은 물론 중도 및 건강한 보수 세력의 지지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러면 개혁세력 연합 대 패권세력의 대결구도가 되어 승리를 일궈낼 수 있다.
- 대선 주자로서 강점과 약점이 있다면.
- ▲ 지금 출마한 어떤 후보들보다 사법, 입법, 행정 등 국정 경험이 풍부하다.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수렴 조정하고 국론을 결집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장

- 점이라고 생각한다. 약점은 뒤늦게 출마해 대선 주자로서의 인지도가 아직 높지 않은 것이지만 진정성과 준비된 역량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 위기의 경제 해법은.
- ▲ 경제가 제대로 되려면 정부와 시장의 역할과 영역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의로운 시장경제질서와 자율적인 기업자유가 공존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 그래야 시장 생태계가 건강해지고 혁신의 기운이 살아난다.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날 때 성장도 일자리도 창출된다. 특히, 대통령 직속 ‘신산업육성 추진단’을 설치, 국가경제전략을 추격자에서 개척자로 대전환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
- 안보와 외교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 ▲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기본 축은 한

남북대화채널 즉각 재가동

집권 1년내 분권형 개헌 추진

광주공항 이전부지에

4차산업혁명 기지 만들것

- 미동맹이다. 튼튼한 한미동맹 위에서 중국 등 주변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특히, 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이 진정성 있게 북 핵 해결에 나선다면 철회를 검토하는 전략적 옵션으로 활용해야 한다.
- 개헌에 대한 입장은.
- ▲ 적극 찬성한다. 호남 입장에서는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집권하면 1년 안에 분권형 개헌을 추진해내고 대통령의 임기단축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감수하겠다.

- 호남 주자로서 차별화된 공약이 있다면.
- ▲ 차별과 소외의 상처를 극복하고 ‘잘사는 호남’을 만들겠다. 대통령이 된다면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서 호남을 발전시키겠다. 광주공항을 이전하고 그 부지를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로 육성하겠다. 광주를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 선도시로 만들고, 전남을 동북아 해양수산·관광산업지구로 지정,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 전북은 새만금 특별시 조성 등을 통해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로 키워가겠다.
- 호남 민심에 호소하고 싶은 메시지는.
- ▲ 이제 호남 중심의 정권 교체를 위해 당당히 나서야 한다. ‘호남총리론’에 안주하면 안 된다. 호남은 민주정부 10년을 탄생시켰다. 김대중 정부를 탄생시킨 것도 호남이고, 노무현의 혁명 역시 호남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4.13 총선에서 호남은 새로운 정치의 길을 제시하여 주었다. 이제 20년 만에 둘러 리가 아닌 호남 중심의 정권교체 길을 찾아야 한다. 통합과 협치의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호남이 열어야 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 · 정행진 · 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